

《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》

-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,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고,
-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되어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하여 지자체 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고,
- C 요양보호사가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,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(RFID)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(RFID)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.

※ RFID(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):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

-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,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,
-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. (시행 '20.10.1.)
- 또한,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'익명'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,
-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전용전화(033-811-2008)를 통해 신고

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.

- ☐ 건보공단 관계자는 “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담청구 행정처
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,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
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해 힘쓰겠다.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부담청구 가담종사자 행정처분 관련법령
2. 부담청구 가담수급자 행정처분 관련법령

붙임1

부당청구 가담종사자 관련 법령

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37조의5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)

-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69조(과태료)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

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

[별표 3]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차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	법 제69조제1항 제8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

[별표 2]

위반행위	해당 조항	행정처분 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	법 제37조의5제1항	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	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

붙임2

부담청구 가담수급자 관련 법령

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29조(장기요양급여의 제한)

-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